

논문접수일 : 2012.03.20    심사일 : 2012.04.05    게재확정일 : 2012.04.26

## 개인적 공간을 위한 파티션 가구디자인

-공유공간인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카페를 중심으로-

The Partition Desig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pace

- Focused on Shared Space of the Caf'e Starbuck and Angelinus

**주저자 : 이태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Lee, tai-kyoung**

Dep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교신저자 : 김 정**

조선대학교 대학원 산업공예학과

**Kim, Jung**

Dep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파티션에 대한 일반적 고찰

## 2. 공유공간 및 파티션에 대한 선행연구

- 2.1. 공간에 대한 정의 및 개념
- 2.2. 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
- 2.3. 파티션에 대한 선행 연구

## 3. 파티션에 대한 분석 및 재료연구

- 3.1. 파티션 높이 연구
- 3.2. 파티션 재료 연구

## 4. 공유공간내 파티션디자인 제안

- 4.1. Flowery - 꽃향기가 나는
- 4.2. Happiness - 행복, 만족, 기쁨, 행운
- 4.3. Dandelion - 민들레
- 4.4. Secret Tree - 비밀의 나무

## 5. 결론 및 제안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해진 문화는 경제적, 감성적 측면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미래의 욕구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분석하여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심리를 고찰하고 공유공간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위해 공간보호를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개념과 그 공간내의 파티션 설치와 그에 따른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생활패턴의 변화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곳으로 현대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공간 이용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그 공간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여유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카페(Cafe) 중에서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은 자연친화적 소재인 나무를 이용하여 곡선과 직선 그리고 식물문양을 중심으로 시각적 차단을 주목적으로 높이인 1500mm가 넘지 않는 파티션디자인 연구를 제시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파티션 디자인을 제시한다.

### 주제어

공유공간, 개인적공간, 파티션 가구디자인

### Abstract

The increases of the female participation and of the time for leisure and changes in spiritual values and in lifestyle result to improvement of quality in life. So the resulting makes the consumers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need the space to meet their requirement.

What the current needs of consumers, how changing needs of the future will go to the effort to reduce the gap analysis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partition design presented a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pace against shared space will be conduct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sychological comfort of individuals. In particular, the space needs of consumers and changing patterns of

living that reflects the phase where the most specific needs of modern people can be accommodated so that appropriate changes will be needed. Space users, rather than simply used as a physical space, their own personality and identity, and feel the peace of mind in that space of time spent in leisure and enjoy the space should be.

This paper continues to grow exponentially in recent years is targeted at Starbucks and Angelinus. Use environment-friendly material for the design curves and straight lines, trees and vegetation patterns based on visual attention block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1500mm to partition the design as presented research to maintaining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order to feel peace of mind partition design is presented.

### Keyword

shared space, personal space, partition furniture design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배경

산업화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개인적인 생활이 많아짐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해진 문화는 경제적, 감성적 측면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의 개념은 21세기 이전에는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21세기에 들어서는 사무실과 집의 중간쯤인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그 개념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는 안정과 방어에 대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소유욕구가 있다고 한다. 인간은 공간 안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안식처를 찾고자 하며 단순히 신체적 손상을 막기 위한 방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경계가 이용된다.<sup>1)</sup>

1) 아브라함 매슬로우(1908~1970):미국의 심리학자·철학자.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www.naver.com](http://www.naver.com), 백과사전.

미국의 사회학자인 플로리다 대학의 레이 올든 버그(Ray Oldenburg)교수가 1989년 그의 저서 「아주 좋은 장소(The Great Good Place)」에서 “제 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제 3의 공간이란 공유공간과 개인적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공간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며 사람들에게 삶의 균형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공간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위해 공간보호를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개념과 설치에 대해 연구하고 공유공간에 인위적인 개인적 공간을 조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또한 파티션을 설치하여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형성됨으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와 행동들에 대하여 분석하여 공간과 공간사이의 이질감이나 경계 짓는 개념이 아닌 융화와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파티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개인적 공간보호를 위한 공유공간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공유공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전시장,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연장, 레스토랑(Restaurant), 카페(Cafe)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은 서울과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우선 서울지역에 있는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에 전화설문을 통해 공유공간의 파티션 유무를 파악하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매장은 직접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을 조사 후 사진 촬영을한다.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 352개와 엔제리너스 매장 324개의 매장 중 2010년 10월 18일~22일 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199곳과 엔제리너스 매장 104곳을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5곳과 엔제리너스 매장 18곳을 방문하여 총 326곳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중 스타벅스 42곳과 엔제리너스 36곳은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이 되었지만 응답이 무성의 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248곳에 대한 자료만 비교 분석하였다.

## 2. 공유공간 및 파티션에 대한 선행연구

### 2.1. 공간에 대한 정의 및 개념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칸, 물리적(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범위,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그리고 물리학에서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간의 개념은 물리(物理)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물리적 공간은 단순한 의미에서 비, 바람 등 외부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벽,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장소이며, 물리적으로 제한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공간으로는 침범되지 말아야 할 고유의 영역이 있으며, 본 연구 논문은 영역 내 협의(狹義)의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2.2.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 2.2.1. 공유공간에 대한 일반적 고찰

공유공간은 인간 활동의 매개공간으로서 배타감, 심리적 중심성, 공간 통제도 등에서 개인적 공간보다는 약하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공유 공간과 개인적 공간에 존재하므로 그 성격이 애매하고 아직 명확한 계획 개념이 정립되고 있지 않지만, 사용면에서는 공용공간이라 하고 소유 면에서는 공유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유공간은 한 가지 경계요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공간 효과 안에서 '공유'라는 인간의 행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에 따르면 공유공간의 사회적 교류는 집단 내에서 소속의식을 느끼게 하므로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언급한다.

### 2.2.2. 개인적 공간에 대한 일반적 고찰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privatu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타인 혹은 타인의 집단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접근 할 때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얼빙 울트먼은 프라이버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보조하고 조절하는 '경계조절'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특히 공간적으로 개인이 갖는 확보영역, 즉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문제를 다루었다.

라포포트(A. Rapoport)는 프라이버시를 "원하지 않는 상호작용을 거부하고 원하는 상호작용을 취할 수 있는 선택(Options), 장치(Devices), 방법(Mechanisms)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상호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프라이버시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개념을 내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형태의 개념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프라이버시는 '본다, 보여진다.'라는 시각적 프라이버시와 '듣는다, 들린다.'의 청각적 프라이버시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의 형태	구체적인 개념
고립(Solitude)	다른 사람들과의 시각적 접촉이나 관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혼자 있는 상태.
친밀(Intimacy)	같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원활히 하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 간의 접촉이나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익명(Anonymity)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는 상태.
보존(Reserve)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는 접촉인 경우 심리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

[표 1]. 프라이버시의 형태(김진경,2001,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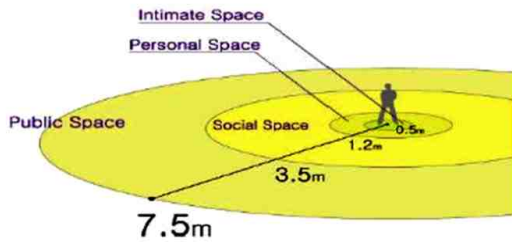
### (1).개인적 공간의 정의 및 개념

개인적 공간은 로버트 쉘머(R.Sommer,1929~1959)의 저서 「개인의 공간 Personal Space, The behavioral basis of design」의 원제이며, 그 속에서 "침입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의 구석"을 말한다.

개인적 공간은 카츠(Katz,1973)가 만든 용어로 환경심리학에서의 사회적 행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생각은 모두에게 주관적이다. 즉, 개인적 공간이란 인간의 의식 및 행동을 규제하는 잠재적인 요소이며, 행태 특성 중 하나로서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연장과 같이 느껴지는 영역으로 외부세계와의 완충지대(Body Buffer Zone)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완충지대가 침입을 받으면 마치 누가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느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防禦機制, defense mechanism)가 발생하게 된다(오선경,2001,p8).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의식 및 행동을 규제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되고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그 잠재력에 의해 인간을 원점으로서 인간의 주변에 보이지는 않는 정해진 공간이 형성된다. 바로 이것이 퍼스널 스페이스(Personal Space, 개인 공간, 개체 공간)이다.

또한 같은 관점으로 에드워드 홀 (E. T. Hall,1914~1968)의 저서 「숨겨진 차원 (The Hidden Dimension)」에서 인간이 공간을 구조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프록세믹스

(Proxemics)라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하여 관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타문화간 갈등의 한 요인이 개체간의 거리, 즉 공간을 지각하는 형식의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보고 '침묵의 언어'인 공간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역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동물행동학의 연구성과 등 다양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이러한 인간의 공간행동을 연구하는 영역을 프록세믹스(Proxemics)라 명명하였다.(최우진,2006,p6)



[그림 1]. 에드워드 홀의 근접 학에 따른 물리적인 거리(이희명, 변상태,2008,p384)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지하는 간격을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라 하며, 개인 주변에 형성되어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을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이라고 한다.(로버트슌머, 1991,p226)

### 2.3. 파티션에 대한 선행연구

#### 2.3.1. 파티션의 개념

현대에서 사용하는 파티션이란 용어의 개념은 분할, 구획, 분배, 배분, 구획선, 분할선(방·건물 등을 구분하는) 칸막이(벽)로 되어있어 실내공간을 구획·분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 외부에 접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내부를 여러 칸으로 구획하여 막아대는 벽을 파티션(Partition:칸막이)이라고 하며(최경애,2000,p16.) 실내공간을 구획·분할하기 위해 가로막은 칸막이벽의 약칭이다. 벽을 뜻하는 경우와 공간을 가로막는데 사용하는 가구, 커튼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력벽(耐力壁-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sup>2)</sup>이 아닌 간단한 구조의 벽으로 블록이나 목조 벽 등이 쓰인다.

2) 구조적으로 자체 무게와 함께 위층이나 지붕으로부터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벽.



[그림 2]. 소재에 따른 파티션의 종류

이미지자료(2012.2.4) <http://images.google.do.kr>

#### 2.3.2. 파티션의 역할 및 종류(쓰임새)

파티션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동시의 두 개 이상의 공간들이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며 동시에 개성 있는 실내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간의 심리적 혼잡성을 감소시키고 업무공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실내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파티션은 설치되는 장소나 그 구조적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고정적인 파티션과 이동적인 파티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3]. 고정적인 파티션의종류

이미지자료(2012.2.4) <http://images.google.do.kr>



[그림 4]. 이동식 파티션의 종류

3) 김정작품 ,2011 화담(花壇)



[그림 5]. 파티션의 쓰임새 - 상업공간  
 이미지자료(2012.2.4) <http://images.google.do.kr>



[그림 6]. 파티션의 쓰임새-주택공간  
 이미지자료(2012.2.4) <http://images.google.do.kr>

### 2.3.3. 한국 파티션의 역사적 고찰

#### (1) 대발(簾, a Bamboo Blind)

대발은 뜻을 나타내는 대죽(竹)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발(簾)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성문자로 “가늘고 긴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하며, “햇볕을 막고, 통풍이 잘 되게 하는 여름철의 실내 장식물로 무엇을 가리는데 사용 함.”(4)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블라인드(Blind), 커튼(Curtain), 스크린(Screen), 웨이드(Shade)가 있다.

#### (2) 방장(房帳, Room Curtains)

방장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인 ‘방(房)’과 “둘러쳐서 가리게 되어 있는 장막”인 ‘장(帳)’을 합한 의미로 “겨울철 외풍을 막기 위하여 방문이나 창문에 치거나 두르는 휘장”을 뜻한다.

4) 한국어사전편찬회, “한국어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1986, p166.  
 5) 한국어사전편찬회, p673.

### (3) 병풍(屏風)

국어사전에서는 “병풍”이란 (주로 집 안에서) 장식을 겸하여 무엇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거나 하기 위하여 여러 쪽으로 접게 만들어 둘러치는 물건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한자로 “병풍”이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바닥 위에 판을 세우거나 의자나 침대 또는 어좌를 두르기 위해 여러 장의 판을 이어붙인 물체를 ‘屏(병)’이나 ‘障(장)’이라 하는데, 둘 다 ‘가리개’ 또는 ‘가리다’는 뜻이다. 병풍의 일차적인 용도는 무엇을 가리거나 막기 위한 것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장식을 겸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윤정, 2004, p.90-107) 병풍의 폭 35~45cm에 높이가 160~18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판이 옆으로 죽 이어 붙은 모양으로 폭의 개수는 짝수인 것이 특징이며 용도에 따라 폭의 개수나 높낮이를 달리한다. 병풍의 다른 명칭으로는 병장(屏障) 혹은 장풍(障風), 청방(淸防) 이라고도 부른다.

### 2.3.4. 파티션 형태 분류에 의한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카페내 공유공간의 파티션 형태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에 설치된 파티션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 하였다.



[그림 7]. 완전 차단하여 건너편과 분리한 것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하여 파티션을 설치하였으나 파티션 사이를 띠어놓아 심리적인 요소만의 파티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재를 스틸로 하여 차가운 느낌을 갖게 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파티션을 설치하였으나 역시 심리적인 요소로만 작용하며,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실내분위기를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그림 8]. 벽과 같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막았지만 창살 같은 처리로 건너편이 보이는 파티션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파티션을 설치하였으나, 창살 모양을 주어 답답함을 없애주었고 또한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했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기 위하여 바닥에서 얇은 키까지의 낮은 높이로 파티션을 설치하였으며 또 창(窓)살형으로 하여 시선은 개방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파티션은 구획하였다는 느낌이 나도록 심리적인 공간분리만을 한 것이다.

[그림 9]. 창(窓)살 모양 살대만 있어 창살 사이로 건너편이 보이는 상징적인 파티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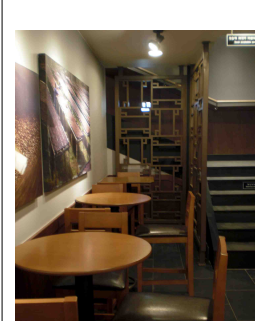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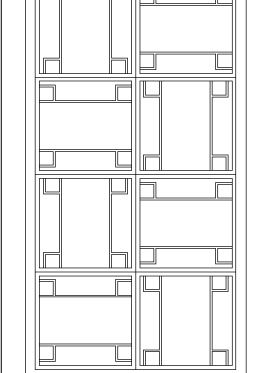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나무와 스틸을 적절히 사용하여 완전 차단도 아닌 반개방형태로 고객이 개인공간을 확보했다는 느낌을 준다.	스틸소재로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앞에 막을 형성하여 좌석에 앉았을 때 이쪽과 저쪽의 완전한 차단을 준다.

[그림 10]. 얇은키 높이에서 차단하고 그 위는 시각적으로 통과하는 것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넓은 매장에서는 두터운 파티션을 설치하여 벽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였으며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꾀하였다. 높이가 낮아 시각적 개방이 되었다. 또한 반원(半圓) 형태라 한 쪽은 감싸안아주는 느낌이나 반대편은 파티션이 돌출로 칸막이의 느낌만을 준다.	카운터와 가까운 쪽으로 매장 중심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의자의 등받이를 두텁게 하여 파티션 역할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선반 역할을 겸하게 하였다. 공간을 나누면서도 그 용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의자 겸 파티션으로 튼튼함을 주지만 형태를 S자로 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다.

[그림 11]. 벽과 같이 두터운 것이나 공유공간만을 차단하기 위해 얇게 칸막이 한 것

### (1) 대표적인 스타벅스 파티션

	
광주 총장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	파티션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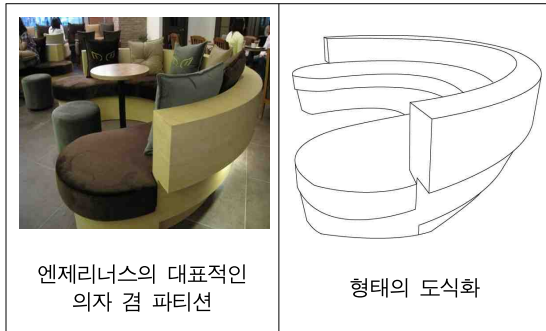
[그림 12]. 스타벅스의 파티션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금 유행하는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인테리어에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바(Bar)형식의 테이블까지 체계적인 배치가 아닌 다소 불규칙적인 배치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타벅스는 각 나라의 정서까지 마케팅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글 간판 그리고 한국적 느낌이 풍기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점차 파티션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파티션의 설치 방법이 고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대표적인 엔제리너스 파티션

엔제리너스는 천사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

체적으로 곡선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의자 겸 등받이 파티션은 고정적으로 의자에 수직형이라 허리를 꼴끗이 세워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파티션으로는 두께가 두꺼운 편으로 매장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답답함과 무거운 느낌을 주어 등받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파티션의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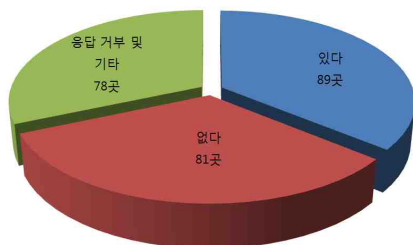


[그림 13]. 엔제리너스의 파티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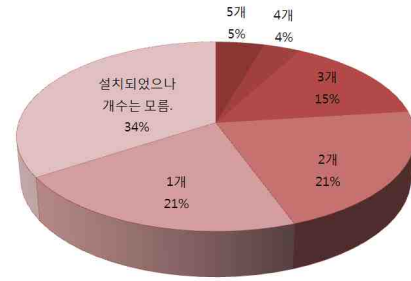
[그림 7~12]에서 보듯, 파티션의 구조적 요소로는 벽과 같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막는 것과 앉은키 높이에서 차단하고 그 위는 시각적으로 통과하는 것, 그리고 벽과 같이 두터운 것이나 공유공간만을 차단하기 위해 얇게 칸막이 한 것 또 완전 차단하여 건너편과 분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창(窓)살 모양 살대만 있어 창살사이로 건너편이 보이는 상징적인 파티션등이 있다.

### 2.3.5.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의 파티션 조사 분석결과

분석결과 서울은 248곳 중 파티션이 설치된 곳은 89곳(35.9%)에 불과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23곳 중 5곳(21.7%) 만이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이 호의적이었으나, 대기업의 기밀이라 정보 누출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기타에 대한 응답은 파티션의 설치여부조차 답변할 수 없다는 곳과 전화연결이 되지 못한 곳이었다.



[그림 14]. 서울과 광주지역의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매장의 파티션 설치 여부



[그림 15]. 서울과 광주지역의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매장의 파티션 설치

## 3. 파티션에 대한 분석 및 재료연구

### 3.1. 파티션 높이연구

벽의 높이가 600mm이하인 경우는 두 공간의 상징적인 구분으로 상호간에 물리적 접근은 차단되지만 공간이 시각적으로 일체화되어 상호 상통되는 성격을 갖게 된다.[그림 16]



[그림 16]. 상징적 경계의 벽

1200mm인 경우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지만 시각적으로는 반 개방적이다. 허리높이부터는 주위공간과 시각적 연결은 약화되며 예위싼 느낌을 주기 시작한다. 이 높이의 파티션을 뒤로 하고 앉았을 때 시선의 높이는 1100mm보다는 높아 주위와 분리된 기분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그림 17]



[그림 17]. 시각적 경계의 벽

따라서 사우나, 레스토랑(Restaurant) 또는 공원 벤치주변의 휴식 공간 조성 시 낮은 칸막이를 세울 때 이 높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 있을 경우 시선이 개방되어서 답답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1500mm 높이의 파티션은 시선에 걸려 시각적 피로감을 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

1800mm 이상인 경우 [그림 18]는 시선보다 높아져 물리적,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프라이버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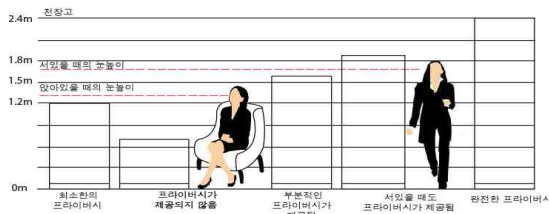
높인다. 이 높이는 에워싼 느낌이 강해 하나의 실(室)의 성격을 가지는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18]. 시각적 차단벽

가구 자체를 파티션이 되도록 하면 실용적인 디자인이 되며 지나치게 높은 파티션은 정두리(판)으로 파티션 상하를 구분하여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낸다.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의 눈높이보다 낮은 1.2m의 차단물이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높이이며 그 보다 낮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앉았을 때의 눈높이보다 높고 서있을 때보다 눈높이보다 낮으면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거나 보여 지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서있거나 통행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적인 프라이버시를 제공받는다. 차단물의 높이가 서 있을 때의 눈높이보다 높아지면 서 있는 사람이나 통행하는 사람으로부터도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실의 높이까지 완전히 차단하면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을 수 있다.(김진경,p17.)



[그림 19].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정도>(김진경, p18.)

파티션은 높이의 정도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파티션이 수직적요소이기때 눈높이를 중심으로 높낮이의 차이에 따라 시각적, 심리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3.2. 파티션 재료연구

#### 3.2.1. 목재

목재 자체가 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침실, 동양적인 거실에 많이 사용 하며 .파티션의 재료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파티션을 사용할

6) 태풍이나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채 안팎벽의 돌레로 벽을 덧쌓는 부분, www.naver.com, 백과사전.

때의 형태는 주로 직선이 많고,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것도 있으며 판재를 조각한 것도 있다.

목재의 종류는 크게 원목과 합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0].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목재 이미지자료(2012.2.15) <http://images.google.do.kr>

#### 3.2.2. 섬유

섬유는 각종 파티션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풍부한 시각적, 촉각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림 21].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섬유 이미지자료(2012.2.15) <http://images.google.do.kr>

#### 3.2.3. 금속

금속은 깨지거나 금이 가는 손상의 위험이 적고 다른 재료보다 적은 구조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2].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금속 이미지자료(2012.2.15) <http://images.google.do.kr>

### 3.2.4. 아크릴

높은 발색도와 빛 투과율, 반사율이 뛰어난 가공성을 지닌 소재로서 유리에 비해 최대 약점인 강도와 마모성을 개선하고 유리대체 소재로 유리의 장점 등을 접목시키는데 과학적으로 성공, 완성도 높은 표준제품과 특수 고품질 캐스팅 판을 다양한 칼라로 생산되고 있다.(전주현, 2005, p7.)



[그림 23].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아크릴  
이미지자료(2012.2.17) <http://images.google.do.kr>

### 3.2.5. 유리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발달되면서 파티션의 재료로 쓰이는 대표적인 자재로 차음성(遮音性)과 단열성이 좋으면서도 채광과 시선의 연장의 가능하므로 불투명 재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공간이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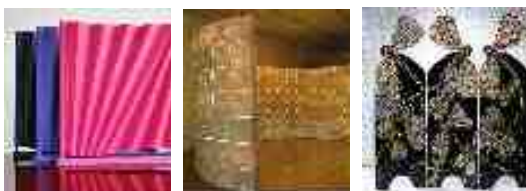


[그림 24].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 유리  
이미지자료(2012.2.17) <http://images.google.do.kr>

### 3.2.6. 기타

도자재 : 부피감과 무게, 견고성이 있어 주로 건축물의 내·외장타일의 재료로 사용한다.

종이 : 표면의 질감을 자유자재로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시각적 효과와 공간구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종이                      도자                      페인팅

[그림 25]. 재료에 따른 파티션의 분류-기타  
이미지자료(2012.2.17) <http://images.google.do.kr>

## 4. 공유공간내 파티션디자인 제안

현재 공유 공간에 설치되어있는 파티션의 대부분이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이며, 변화라고 해도 S자 형태 정도 일뿐 크게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 고정으로 설치되어있다. 또한 사이즈 역시 획일적으로 똑같은 패턴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바닥부터 벽까지 연결된 사이즈거나 얇은 키 높이에서 조금 높은 사이즈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앞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공유 공간 내에서 개인적 공간 보호를 위한 파티션의 크기와 형태를 추출해 보았다.

우선 카페의 주 고객인 20~30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을 살펴보면 혁신성, 명품 선호성, 과시성, 미적 추구성, 추종성, 매력성으로 나뉘볼 수 있다.(이유진, 이원준, 정상수,2009,p310) 카페를 찾는 20~30대의 여성들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성이 강한 '특별하다', '독특하다'라는 느낌에 관심이 많다. '통일된', '똑같은' 느낌의 디자인은 식상함을 줄 뿐만 아니라 지루함까지 안겨주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고 해도 조금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20~30대들의 심리이다.

때문에 파티션의 크기에 있어서 너무 높은 높이의 파티션은 부분적인 시선차단이 아닌 공간구획으로 자칫 공간 안에 공간을 설정하게 되므로 1500mm 미만의 사이즈로 디자인하고, 형태에 있어서는 기존 파티션의 직선적인 형태를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기본으로 꽃의 형태나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 등을 이용한 디자인을 제안 한다. 카페의 주 고객층인 여성 고객의 고급스런 취향에 맞춰 꽃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곡선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는 나무를 이용하여 전통문양의 현대적 표현과 새로운 패턴방식을 중점으로 하였고 다양한 작업 방법 중 CNC 조각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제시한다.

### 4.1. Flowery - 꽃향기가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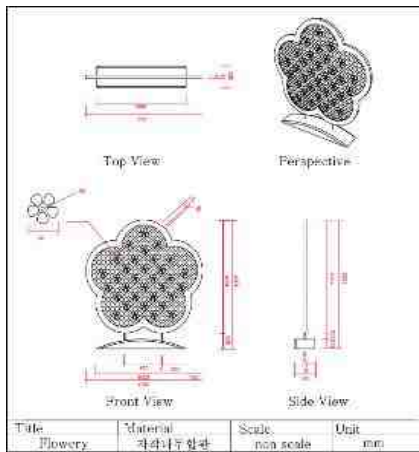
꽃은 인간생활의 정서를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로 누구에게나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꽃을 형태적으로 분석하면 하나하나 각기 다른 형태로 특히 꽃잎의 선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양이 관능적이기도 하다. 또한 꽃으로 인한 다양한

7) CNC-컴퓨터수치제어에 의한 작업으로, 정밀한 가공 및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며 목재를 이용한 장식표현에 탁월하다.

상상으로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30대를 타겟으로 한 제품에는 꽃을 이용한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전제품이나 액세서리,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등에 많이 나타난다. 작품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매화에서 모티브를 잡았고, 단순한 형태가 아닌 꽃 자체의 형태로 디자인했다. 곡선의 부드러운 느낌의 반복과 체계적인 격자무늬를 이용하여 반복적 패턴으로 구성했다. 격자무늬는 시각의 반개방 형태를 나타내며 CNC를 사용해서 투각하여 옆 테이블과 시선의 차단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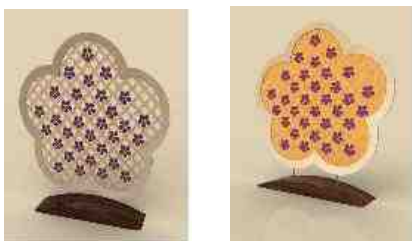
공유공간인 카페 안에 꽃이나 화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화분은 공기정화의 효과 겸 가벽의 형태로 놓인 경우가 많다. 또한 화분(=식물)의 경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차단의 정도의 변화가 커지는데 여름의 경우 무성한 풀로 공간이 완전하게 차단되고, 겨울에는 풀이 없어져 공간의 개방감이 커진다. 또한 관리의 부실로 인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그러나 꽃 형태의 파티션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화분처럼 물을 주거나 관리하는 불편함을 덜고 식물이 주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 4.1.1. Drawing



[그림 26]. Drawing

#### 4.1.2. Ren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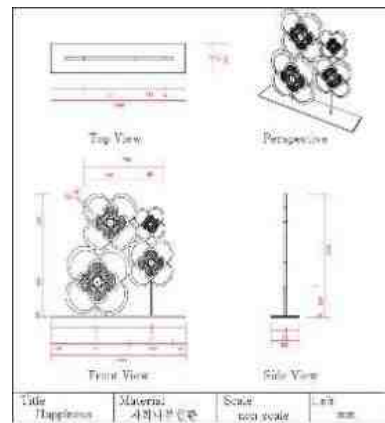
#### [그림 27]. Drawing Flowerly

자작나무 합판 사이에 홈을 파서 유리나 아크릴을 넣어서 변화를 준 것과 전체적인 색상에 컬러감을 줘서 표현한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을 경우 주목성을 함께 띄게 되어서 안면이 적은 사람과의 약속을 잡을 때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 4.2. Happiness - 행복, 만족, 기쁨, 행운

네잎클로버 형태에서 모티브를 잡아 전체적인 클로버 안에서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있는 모습을 디자인했다. 예전과 달리 공유공간인 카페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거나 토론의 장(場)의 되거나 식사와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자작나무 한판에서 4개의 네잎클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행운의 연결을 나타내준다. 하나의 클로버로 인한 행운이 아닌 반복을 통한 무한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고자 한다. 많은 공유공간에 설치된 파티션들은 직선이나 의무감에 설치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과 조금 더 연결시키고 고려한 디자인의 파티션이 설치된 공간은 안락함과 따스함을 안겨 준다.

#### 4.2.1. Drawing



[그림 28]. Drawing

#### 4.2.1. Rendering



[그림 29]. Happ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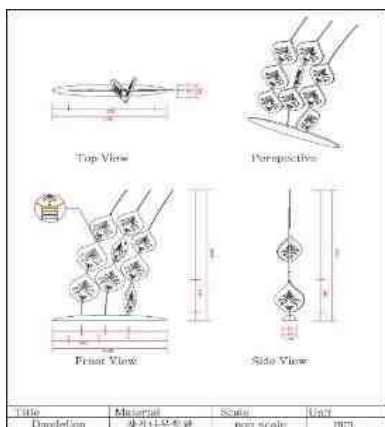
#### 4.3. Dandelion - 민들레

명품 가방이나 의류 등에서 많이 사용된 페이즐리 문양을 인용하여 하나의 패턴을 완성하고 길가에 핀 민들레를 모티브로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꽃을 디자인했다. 나약해보이지만 별이 잘 드는 들에 피는 민들레처럼 공유공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따스한 별이 잘 드는 안락함을 안겨주고자 제작했다.

유동성과 실용성이 큰 디자인으로 하나의 조각을 끼워 맞추는 형식이며, 높이나 방향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양 사이트에 테이블이 있는 좌석에 앉아있다면 오른쪽에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놓거나, 반대편에 타인이 앉을 경우 반대로 돌려서 자신만의 공간을 연출 할 수 있다. 다양한 공간 활용을 요구 할 때 설치하면 공간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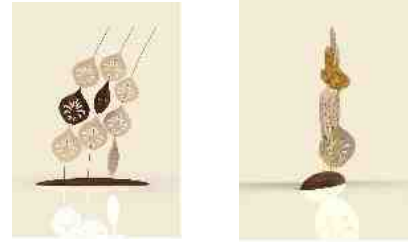
문양을 투각시킨 것은 시선차단 및 부분적 조망, 호기심 유발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색상의 변화를 준다면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

##### 4.3.1. Drawing



[그림 30]. Drawing

##### 4.3.2. Ren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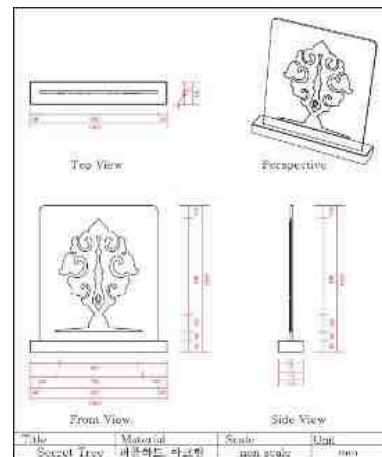


[그림 31]. Dandelion

#### 4.4. Secret Tree - 비밀의 나무

다마스크 문양을 변형시켜 나무의 형태를 모티브로 잡았다. 나무는 휴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 3의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Secret Tree를 통해 휴식과 안정을 주고자한다. 아크릴과 나무의 조합으로 아크릴 속에 나무가 들어가 있어 공간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인간의 프라이버시 표현해보았다. 투명소재의 재료는 완전한 개방상태를 표시하는데 자작나무를 이용하여 부분개방을 유도하면 부분조망을 통해 경계의 모호함과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또한 공유공간에서 파티션이 설치되게 됨으로써 흥미로운 요소가 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단순히 공유공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적 공간 설정이 아닌 파티션 설치로 인해 공간에서 흥미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4.4.1. Drawing



[그림 32]. Drawing

##### 4.4.2. Rendering



[그림 33]. Secret Tree

## 5. 결론 및 제언

인간이 요구하는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공유 공간 내에서 느끼는 심리를 고찰한 결과 현대인들은 공유공간에서도 개인적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카페라는 공유공간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분적으로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간의 분할을 목적으로 한 파티션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유공간 내에서의 개인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파티션을 자연친화적 소재인 나무를 주재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파티션 설치로 인해 과도하게 경계 지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공유공간의 설치를 감안하여, 필요할 때는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파티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조화속의 '개인 공간'이 연출 될 수 있도록 1500mm 이상이 되지 않는 낮은 높이로 제작하여 파티션이 놓인 공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보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매장을 통한 방문연구를 통해 방문자들의 기호도에 따른 지역적·대상적·환경적 파티션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에 따라 파티션의 디자인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추출 할 수 있었다. 또한 공유공간은 취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파티션의 디자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공간에서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 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경계의 영역을 한정하기도 하고 주변영역과 접촉을 연출하여 관계 맺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간 활용도가 증가됨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파티션의 설치의 단순한 공간구획이 아닌 자신 또는 그와 함께하는 지인이나 소그룹의 특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용성과 장식성이 가미되고 이동이 편리한 파티션이 디자인되어 공간 안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파티션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인 공유공간에서의 인테

리어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 공간 중에서도 카페라는 공간에서 획일적인 형태의 파티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주목성을 띄기도 하지만 공간을 특별하게 연출 시킬 수 있으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으로 조화와 융합이 되는 파티션을 제시함에 따라 공유 공간 내에서 분리와 단절로 인한 균중속의 고독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시각적 차단만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소외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의 사용분배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남녀노소나 공간별로 아이템을 분석하여 각각의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어느 자리에라도 파티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닥 시공 시에 파티션의 설치를 고려한 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연구는 차 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유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의 보호를 위한 파티션 디자인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었다. 즉 젊은 세대들의 기호에 따라 형태, 문양 높이, 그리고 색채 등의 요소가 파티션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경(2001) 「오픈 오피스에서 프라이버시와 영역성에 관한 디자인 모형사례 연구」,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 오선경(2001) 「전시공간의 관람양상에 대한 환경 심리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개인 공간 유지성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대학원.
- 최우진(2006) 「물이미지와 큐브를 통한 자아존재성」,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이희명, 변상태(2008). 공공영역에서의 개인 공간 보호를 위한 행동 연구와 디자인 가이드 제안-카페테리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8년 10월
- 로버트 쉘머(1991). 『개인의 공간 Personal Space, The behavioral basis of design』
- 한국어사전편찬회(1986), 『한국어대사전』, 서울, 성문회사
- 한국어사전편찬회
- 김윤정(2004). 병풍(屏風)의 기능에 대한 고찰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지논문』, 생활문화연구 제14호
- 최경애(2000) 「한국의 이미지를 응용한 파티션 직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전주현(2005) 「면사와 아크릴판을 활용한 섬유조형 작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이유진, 이원준, 정상수(2009). 20대 여대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별 유행색(09-10 F/W) 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이미지자료 <http://images.google.do.kr>